

# 여수시민 “여수밤바다불꽃축제 장소 옮겨야”

설문 결과 59% “개최 장소 변경”  
소호요트경기장·신월동 등 선호  
인프라·접근성·교통 검토후 선정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 만들 것”

여수시민 절반 이상이 여수밤바다불꽃 축제 개최 장소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개최 관련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759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여수밤바다불꽃축제 개최에 따른 중앙동 일대의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가중, 이순신광장에 집중된 행사로 거주민들의 피로감 호소, 기존 개최 장소의 해상 활용 공간 협소 등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참여자 59%가 불꽃축제 개최 장소에 대해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적지로는 △소호요트경기장 앞 해상 △여수세계박람회장 앞 해상 △신월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 해상 순으로 꼽았다.

개최 장소 특화 관련으로는 1개 장소로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 2개 장소로 순회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조사됐다.

개최 주기는 매년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81%, 격년제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17%로 집계됐다.

여수시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장소

별 접근성, 관광 인프라, 교통 문제, 방문객 수용 공간 규모, 불꽃 바지선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축제 개최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축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선호도를 알게 됐다”며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고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변화된 축제를 위해 축제 장소 최적지 선정, 새로운 불꽃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양시, 7월 확대간부회의 열어  
중점 현안업무 논의

광양시는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인화 시장 주재로 실·단·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 중점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인화 시장은 먼저 민선8기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행정을 정립해야 함을 당부하며, 이는 모두가 ‘함께, 같이’ 노력해야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 하계휴가철을 맞이해 직원들이 계획한 기간 중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부서별 업무 수행과 민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인계인수 등을 요청했다.

이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추진과 관련해 계곡뿐만 아니라 물놀이가 가능할 만한 곳은 모두 사전 점검토록 지시하고, 특히 위험구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C형간염 항체 검사 추진에 대해 C형 간염환자 중 전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을 언급하며, C형간염 항체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공급되는 신규 공동주택과 관련해 입주 후 임대료 반환 불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아파트 사업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구례군, 야외 정례 조희 개최  
구례수목원서

구례군은 지난 1일 구례수목원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색 정례 조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조희회는 올해 상반기 군정을 잘 마무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하반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김순호 군수가 특별히 기획한 이벤트로 군정을 벗어나 구례군의 대표 수목 명소인 구례수목원에서 진행됐다.

클래식 공연팀 앙상블 힐러스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즉석에서 직원이 참여하는 무대, 경품추첨 등을 통해 직원들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야외 정례 조희회를 통해 수국이 만발한 구례수목원의 아름다움을 직원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직원 각자가 구례군의 홍보맨이 되어 구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정례 조희회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이 ‘쉼이 있는 여행’ 테마 전남도 7월의 추천관광지에 선정됐다.

광양시 제공

##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전남도 7월의 추천관광지 선정

‘쉼이 있는 여행’ 테마 추천

광양시가 백운산자연휴양림이 명상·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쉼이 있는 여행’ 테마 전남도 7월의 추천관광지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해발 1222m 백운산 자락에 있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식물생태숲, 황토길 등을 갖춘 현대인들의 쉼터다.

특히 치유의숲은 ‘백운산 치유의숲 센터’와 봉황, 돼지, 여우 등 백운산에 깃든 삼정 스토리를 살린 ‘치유의 숲길’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백운산 치유의숲 센터는 2층 규모로 세

미나실, 건강측정실, 명상·요가실, 힐링 테마다실(족욕장), 아로마테라피실, 피톤치드 카페, 일광욕장 등을 두루 갖췄다.

‘치유의 숲길’은 돼지꿈길, 봉황돋움길, 숲가마옛길 등의 특색있는 6개 코스 총 10km 길로 풍욕쉼터, 편백명상터 등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진행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청소년, 가족, 직장인 등 대상과 직군에 따라 내·외부프로그램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구성됐다.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은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며 나무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동백공방, 매화공방 등 수준별 목공체험장과 나무상상놀이터 등으로

꾸며져 있다.

백운산자연휴양림에 조성된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야영장, 케빈하우스 등 다양한 숙박시설도 취향과 낭만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쉼과 힐링을 선사한다.

산림치유프로그램, 목재문화체험장, 숙박시설 등은 광양시청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사전 예약해야 하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야영장은 시설 개선 공사로 내년 3월까지 휴장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수목과 사계절 초화류를 감상할 수 있는 20ha 규모의 생태숲과 황토길도 면역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 추진  
보성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보성군은 ‘복지 600’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보송보송-포근포근-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신규사업으로 보성시니어클럽에서 위탁 수행하며, 2023년에 군비 4000만 원을 투자해 산업용 세탁기와 건조기 2대를 구매 및 설치해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불 빨래방은 고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이불 세탁이 힘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보성시니어클럽에서 직접 마을경로당을 방문해 마을 내 복지 인적자원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건조 후 다시 마을경로당으로 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이날 김철우 보성군수도 이불 빨래방 추진 현장을 방문해 세탁 봉사를 실시했다. 김 군수는 무더위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무거운 이불 빨래를 손수 옮기며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불 세탁 서비스를 이용한 벌교읍 정모 어르신은 “집에 세탁기가 없어 대야에 넣고 발로 밟아서 이불 빨래를 했는데 오늘 밤에는 포근한 이불을 덮고 단잠을 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 사업은 아직도 세탁기가 없거나 이불 세탁이 힘든 가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복지 정책부터 일상생활 돌봄까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



진로 체험 ‘청·수 한 끼’ 진행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은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 진로체험 ‘청·수 한 끼’ 요리 체험을 진행했다.

아동·청소년 진로체험은 아동·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확한 자기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직업관을 확립시키고 자신의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6월 ‘청·수 한 끼’ 체험에서는 ‘피크닉 도시락 만들기’로 롤 샌드위치와 밥 위에 크래미, 에그스크램블, 각테일 새우 등 토핑을 얹어서 먹는 유부초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멜론, 방울토마토, 블루베리를 활용한 디저트까지 만들었다.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은 7월에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건담 만들기, 목공 프로그램, 바리스타 프로그램, 원예 프로그램, 현장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장흥=김전환 기자

## 고흥군, 2024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행정’ 수상

고흥군이 지난달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친화행정’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와 주한대사 문화친선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12년부터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및 브랜드를 발굴해 매년 시상해 왔다.

고흥군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에서부터 판매·수출까지 행정에서 앞장서서 추진해 온 결

과 ‘소비자친화행정’ 부문을 수상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농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어온 공로를 인정받았기에 민선 8기 반환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값지고 크다고 할 수 있다.

고흥군에서는 515농가가 1901ha의 면적에서 23만7904톤의 쌀, 유자, 토마토 등 다양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런 품질 좋은 고흥의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를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고흥몰’을 운영 중이

다. 그리고,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고흥의 우수한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체코, 프랑스, 중국, 일본, 몽골 등 7개국 17개 유통사와 853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통해 고흥군 농수산물의 신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군의 농어민들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서 국내외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다”며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고흥의 먹거리를 전국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